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주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월 ~ 토, 새벽 5시 30분

4월 1일(월)부터 4월 6일(토)까지의 새벽기도회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로 모인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무덤에 장사되시기까지의 고난의 행적을 상고하는 특별새벽기도회는 새벽 5시 30분에 1층예배실에서 갖는다. 십자가에서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여신 주님을 묵상하며 지금 처한 갖가지 위기와 고난을 주님의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회로 삼도록 한다.

학습·세례식

3일(수) I, II부 예배 시

1일(월)에 교육, 2일(화)에 문답

3일(수) I, II부 예배 시에는 학습·세례식을 거행한다. 이를 위한 교육은 1일(월) 오후 7시에 3층 찬양대실에서, 문답은 2일(화) 오후 7시에 4층에서 갖는다. 문의는 새가족부나 교구 담당 목사에게 하면 된다.

금식일 선포

5일(금) 해 있는 동안

금식헌금은 북한 수재민을 위해 사용키로

고난주간 동안 내내 참회와 경건의 생활에 힘쓰되 특별히 주님의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5일)에는 해 있는 동안 금식을 하며 절제의 생활을 실천한다.

구제위원회(위원장: 이남호 장로)에서는 고난 주간엔 금식과 절제를 통해 모은 금액을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를 보내어 북한의 수재민을 돕는 일에 사용하기로 했다. 금식헌금은 다음 주일(7일) I, II, III부 예배 헌금 시간에 바친다.

특별 금요기도회

5일(금) 오후 9시에 연합으로

금요일 저녁 9시에는 연합으로 모여 특별기도회를 갖는다. 이날의 설교는 이종윤 목

사가 한다. 연합으로 기도회를 가집에 따라 매주 금요일에 가지는 교구별모임과 다락방모임을 별도로 가지지 않는다.



다음 주일(7일)은 부활절

부활절(7일) 새벽예배는 새벽 5시에 교회에서 드리며 서울시 연합예배는 장충체육관에서 5시 30분에 드린다.

I, II, III부 예배에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며 부활절 감사 헌금과 금식헌금을 드리는 순서가 있다.

교회학교별로 부활절 행사가 진행되며 저녁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부활절 음악예배를 드린다.

고난주간 주님의 행적

- ① 승리의 입성(일요일, 막11:1 - 11)
- ② 성전을 두번째 정결케 하심(월요일, 막11:15 - 26)
- ③ 유대인과의 마지막 논쟁(화요일, 막11:27 - 12:40)
- ④ 감람산에서 예언적 강론(화요일, 오후, 마24:25)
- ⑤ 예수의 발에 두번째 기름을 부음(화요일 저녁, 눅 7:3 - 50, 첫번째는 막14:3 - 9 참조)
- ⑥ 가롯 유다가 유대인들과 흥정(화요일 밤, 막14:10 - 11)
- ⑦ 베다니에서 휴식(수요일, 복음서에는 없으나 학자들의 견해)
- ⑧ 유월절 준비와 음식을 잡수심(목요일 오후, 막 14:12, 31)
- ⑨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심(목요일 밤, 막14:32 - 52)
- ⑩ 안나스 앞에서의 야간재판(금요일 동트기 전까지, 요18:12 - 13)
- ⑪ 가야바 앞에서의 재판(금요일 동트기 전까지, 막 14:53 - 72)
- ⑫ 산헤드린에서 아침 재판(금요일 오전, 눅22:66 - 71)
- ⑬ 빌라도 앞에 서심(금요일 오전, 눅23:25)
- ⑭ 헤롯 안다바 앞에 서심(금요일 오전, 눅23:6 - 12)
- ⑮ 빌라도 앞에 두번째 서심(금요일 눅23:13 - 25)
- ⑯ 십자가에 달리심(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3시, 막 15:16 - 41)
- ⑰ 묻히심(금요일 오후 6시이전 곧 안식일 직전, 막 15:42 - 47)
- ⑱ 무덤에 머무심(토요일)
- ⑲ 부활하심(일요일 새벽, 막16:1 - 8)

유년부 교육목사에 이상진 목사 청빙



당회는 이상진 목사를 유년부 교육목사로 청빙하기로 했다.

이목사는 1960년도 생으로 총신대학교 신학과와 동 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995년 서울 남노회에서 목사 임직을 받았다.

이목사는 현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기독교 교도소 설립추진위원회 실무 간사로 일하고 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신비스럽고 감사한 일인데, 인간의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이유를 묵상하며 은혜를 기다립니다.

1.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한 대리적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는데 매맞고 고난의 쓴 잔을 마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는 2000년 전 예루살렘 근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을 조롱하고 그의 말씀을 무시할 때, 애 통하는 형제의 아픔을 외면할 때, 십자가의 승리를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좌절하며 낙심할 때, 주님은 그런 우리로 인해 한 번 더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당신을 못 박는 자를 위해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를 비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감상적으로 생각하면서 눈물만 흘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한 우리들은 고난주간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화해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염원하는 복음화된 통일조국도 사랑으로 피차 용서하고 포용할 때에 실현될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목말라 하셨습니다. 아픔의 우물 곁에서 생수를 약속하신 전능자의 거룩과 위대함이 치욕을 당하는 모순된 순간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존엄성을 포기하시고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역사 속에 오신 주님의 거룩함과 신성이 진정으로 계시된 순간입니다. 다른 사람 위에 서서 군림하려는 교만함을 버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의를 위해 다른 사람 대신 욕 먹기를 각오할 때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2.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 죄값은 사망인데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정죄를 받으신 속죄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값을 속량을 받은 것입니다.

고난주간 설교

이사야 53장 4절 - 9절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 중 윤 목사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갈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 6절)

다. 그러므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절망에 빠져 가슴만 치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효험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 아래 떨어진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십니다. 칼빈은 주님의 이 외침이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영혼과 한 묶음으로 묶어서 하나님께 위탁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순간을 공황의 은총을 힘입는 순간으로 전환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참회의 눈물을 흘릴 때, 정진과 성취의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 되었듯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으며, 우리의 죽음을 그리스도가 대신 당하셨으니 그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된고로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3. 우리로 하여금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행동을 우유부단하다고 보고 실의에 빠진 사람, 메시아가 아니었다고 비난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정당성을 포기한 한 편의 강도입니다.

주님께서 한 편의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심으로 그는 십자가의 승리를 최초로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메시아되심을 믿었을 뿐 아니라 입으로 시인한 최초의 전도자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무가치한 자들이었습니다. 새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드러내려던 옛 습관을 벗고, 날마다 자기를 포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사는 변화된 새 사람의 생활로 주님께 영광돌리시기를 소원합니다.

✦ 순례자 컬럼 ✦

“하나님의 아픔”

사랑은 아픔이다. 사경을 헤매는 자식을 앞에 놓고 자신의 무력을 애통해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살인강도에 끌려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어 가슴만 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사랑한 것만큼 아픔은 클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앓는 이 아픔을 차라리 고통이라 할까? 불신과 배신, 저주와 죽음의 고통 속에 사랑의 보혈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자기의 살을 깎고 뼈를 마르게 하는 아픔이 있어야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갈보리산 적토박이 언덕 위에 세워진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고통의 응어리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인생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는 아픔을 체험하신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사진으로보는 목회자신학세미나 제 9학기 개강 현장

■3월 25일(월), 제9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강남 YMCA 대강당에서 개강하였다. 이번 학기에는 "현대사회와 교회"라는 주제 아래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기도와 신학적 연구를 통해 현대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게 될 것이다.■

▶YMCA 대강당은 말씀연구와 신학적 강의를 통해 영적인 재충전을 얻고자하는 목회자들로 첫 시간부터 가득했다.

▼분비는 접수창구



▲"오랫만입니다" 목사님들의 반가운 인사

▼"목사님, 명할 다녀야죠"



▼시작에 앞서 감사와 간구의 시간을 갖는 봉사자들

■3월 23일(토), 우리교회는 군복음화를 위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세례식과 성찬식을 집례하였다. 성찬예식 후 다과회를 열어 세례받은 생도들과 가족들에게 축하하며 위로하였다.■

육사세례식



■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를 준비하며 ③

‘김치’ (KIMCHI)의 맛내기

모든 행사가 그렇지만 김치신학세미나의 진행에 있어서 봉사자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강의와 회의 등 모든 순서가 영어로 진행되는 이 세미나에서 환영, 접수, 안내, 환송 등을 영어로 할 수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새벽기도나 주일예배 시에는 동시통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시설면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이 일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하다. 한국의 김치맛을 알게 할 우리교회 식당에서의 봉사를 빼놓을 수 없다. 숙소가 교회와 떨어져 있고 현장학습과 산기도 등 참가자의 이동이 많기 때문에 기동성 있는 수송을 위한 차량과 안내자가 필요하다.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별도의 예산이 없이 이 세미나를 위한 헌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따라서 물질적 헌신도 필요하다.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양념을 한 후에 잘 익히는 것이 김치의 제 맛을 내는 비결이다. 김치의 맛이 무르익어 최상의 맛을 만끽할 수 있기 위해 무엇보다도 온 성도의 기도의 열기로 잘 익혀야 한다.

(문의 및 신청 - 김대호 장로)



▲세례식과 성찬식 광경

◀다과회



장로 7명 증원기로

5월 19일(주일) 공동의회에서

우리교회 당회는 교회부흥과 화평을 위해 5월 19일(주일)에 공동의회를 열어 7명의 장로를 증원하기로 하고 선거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선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해석서 제58조 3항에 의거하여 당회가 천거한 후보를 공동의회에 내놓게 된다.

투표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이며 후보자 공천대상은 현재 시무 중인 안수집사와 협동장로이다.

토마스 롱 박사 내한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 강의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설교학 교수로 재직 중인 토마스 롱 박사가 장로교 신학대학교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중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 특강을 하게 된다. 토마스 롱 박사가 4월 8일 1교시에 할 특강의 제목은 "예수의 설교와 우리의 설교"이다.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시 3월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부에서는 오늘 찬양예배 시에 새가족 환영회를 가집니다.

3월에 등록한 새가족은 예배 전 인도자와 함께

예배실 앞에 마련된 환영석에 앉아 주십시오.



* 3월의 새가족 *

조부환 한순자 정순옥 백상기 최순자 한준기 양달호 한정원
양재홍 강남규 유영옥 박진숙 이은근 구미랑 김화경 최양자
권도성 김계옥 김재석 김수원 임해란 김성란 최인숙 이연원
이찬우 정원석 임대순 박경옥 김사라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우리도 벽돌 한 장

* 새 예배당 건축을 앞두고 모두가 한마음되어 절제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사랑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정성어린 손길이 화제가 되고 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라도 건축헌금에 동참하면서 기도하게 할수는 없을까' 하고 고민하던 선생님들은 자기 반 아이들의 이름으로 매월 일정액을 헌금하여 적금을 넣기로 했다. 세달째 적금을 넣으면서 불어나는 액수만큼 선생님과 학생과의 사랑도 두터워지고 있다고.

* 교우 동정 *

* 임해숙 성도(4교구, 반포 2다락방)는 28일(목) '해진화장품'을 개업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511 - 7633)

공동부

사순절과 금식



초대교회 사순절의 전통은 '금식'과 '성지순례'에 초점을 두고 발달했다. 초대교인들과 세례 후보자들이 부활절 축제를 맞이하는 준비 자세로 금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세례 후보자들은 부활절에 세례를 받기 전에 며칠동안 금식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입교를 준비했고 관습에 따라 세례 후보자들의 보증인이나 같은 교회의 신자들도 지원자들과 함께 금식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고난주간의 첫날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을 기억하며 금식했고, 화요일에는 유다가 예수님을 비난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했으며, 목요일에는 최후의 만찬 뒤에 예수님이 체포되었기 때문에 금식했다. 또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심문을 당한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을 기억하며 금식했다. 토요일에는 무덤에 머물러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금식했다.

이같은 금식기간은 점차 40일로 확대됐고 7세기경 라틴교회에 의해 현재의 형태로 정착되었다. 그 기간은 모세나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동안 금식했다는 것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저녁이 되기 전에 먹는 하루의 한끼의 식사만이 허용됐고 고기나 생선 등은 엄격하게 금지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달걀과 우유로 만든 음식까지 규제되었다. 동방교회는 지금도 이러한 전통이 고수되고 있다.

사순절 전통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본래 사순절의 의미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금식한 것으로 이웃을 구제하는 일도 포함하고 있었음을 잘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고난주간에 금식과 절제의 삶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일과 동시에 이웃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 제 9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 ③ 4월 8일 - 제 1교시 / 예수의 설교와 우리의 설교 (토마스 롱 박사)
제 2교시 / 통일 이전과 이후 한국교회의 역할 (노정선 박사)
- ④ 4월 15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운 목사)
제 2교시 / 목회자의 가정생활과 교회성장 (정동섭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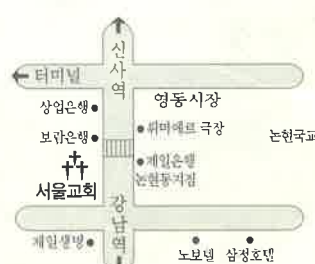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매주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참회와 근신하는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지낼 수 있도록
2. 목회자신학세미나를 통해 교회가 새로와질 수 있도록
3.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를 위하여
4. 새가족들의 신앙성숙과 교회생활 적응을 위하여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할 수 있도록